

K리그 전북·포항전 '교체 실수' ... 외국 사례 살펴보니

작년 독일 뮌헨·프라이부르크전은 심판에 책임

지난달 28일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교체 실수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실수의 책임이 누가 더 큰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징계 여부가 갈렸다.

연맹은 지난달 30일 경기평가위원회를 열고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포항의 몰수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작년 4월 2일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프라이부르크의 정규리그 경기다.

당시 뮌헨이 후반 40분 김승희 코망, 코랑탱 톨리소를 동시에 빼려고 했는데, 교체 과정에서 코망이 그대로 경기장에 남아 약 17초가량 12명이 뛰었다.

2021년 교체인원 초과 몰수부르크는 몰수패 프로축구연맹, 해외 사례 검토 주중 결론 낼 듯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양 팀 관계자들이 심판과 상의 끝에 경기를 속행했고, 뮌헨이 4-1로 승리했다.

프라이부르크는 경기 후 무자격 선수가 뮌헨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독일축구협회에 제소해 뮌헨의 몰수패를 주장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 규칙에 따르면 선수 교체 절차 규정상 '무자격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면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0-3 몰수패를 당한다.

하지만 독일축구협회는 뮌헨보다 교체 과정에서 관리를 못 한 해당

경기 심판진의 책임이 더 크며 뮌헨에 몰수패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반면 전북-포항전에서는 포항이 교체 선수 명단을 잘못 기재해 혼선의 빌미를 제공했다.

포항은 신광훈과 교체할 선수로 부상 입은 김용환이 아니라 김인성을 적어냈다.

대기심은 김인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신광훈의 교체 선수를 그라운드 밖에서 치료받던 김용환으로 착각해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포항이 애초 제대로 교체 명단을 제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다.

구단의 실수 사례는 2021년 8월 8일 독일축구협회(DFB)컵 1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 뮌스터의 경기와 비슷하다.

이때 볼프스부르크는 허용된 교체 인원인 5명을 넘어 6명을 교체해 3-1로 승리했다.

뮌스터 구단이 제소하자 독일축구협회는 교체 인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볼프스부르크의 책임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심판진보다 더 크며 몰수패를 선언했다.

볼프스부르크 구단이 경기 중 교체를 안내한 심판의 책임을 물었지만, 독일축구협회는 애초 오만한 구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교체 실수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1년 9월18일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광주FC가 허용된 3회 교체를 넘어 4번째 교체를 해 0-3으로 몰수패를 당했다.

연맹은 당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에게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었다. 2000년 7월1일 전북 현대와 부천 SK(현 제주)와 경기 후반 39분 코너킥 상황에서 전박이 조란을 투입했는데, 박성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란이 들어가 약 10초간 12명이 뛰었다.

부천은 연맹에 제소했지만, 교체 과정에서 심판들의 잘못이 컸다며 전박을 징계하지 않았다.

한편 연맹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주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정읍 장애인체육회 소속 김승희, 항저우AG 맹활약

론볼 여자 개인결승서 인니 선수 꺾고 우승
혼성 B8서 정상철과
합 맞춰 동메달 추가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권게임 론볼 종목에 출전한 정읍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김승희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승희 선수는 지난달 25일 중국 항저우 윈루이스를 론볼 경기장에서 열린 론볼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를 16대10으로 꺾고 압도적인 실력 차를 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론볼 혼성 B8에서 정상철 선수와 합을 맞춰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승희 선수는 "우연한 계기로 론볼에 재미를 느껴 한 운동이 선수로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됐다"며 "이번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가 돼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됐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김승희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딴 것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정읍에 자긍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하도록 장애인 체육인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금길



발롱도르 트로피를 받은 메시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레 극장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 남자 선수 부문 여덟 번째 발롱도르 트로피를 받은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K리그-코리아세븐, 공동 마케팅 '맞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공동 마케팅 및 유통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맹은 "10월 30일 축구회관에서 한웅수 연맹 부총재, 코리아세븐 최경호 대표이사, 김민정 마케팅부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사는 성공적인 K리그 파니트레이딩 카드 협업에 이어 앞으로도 프로축구 저변 확대와 함께 다양한 사



업, 업무 등을 공동 추진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약 사항은 △제품 출시 및 공동 홍보 진행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이다.

/뉴시스

NH 100년농협

함께하는 100년농협

축! 전주매일 창간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고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양물 지급
-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물 증정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액 10만원 이상 : 10% 연액 공제
- 100만원 초과 : 15% 연액 공제
- 기부금액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지역사랑 보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월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협

* 기부 한도에 125만원(연간 500만원 이내)만 기부 불가

●농협중앙회정수군지부 지부장 정영선 ●정수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광점용

'시·도 태권도협회 펌투어 참여 경기도태권도협회 "앞으로 태권도원 더 자주 올 것"

재단, 지난해 이어 추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시도 태권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협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태권도원을 상세히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태권도협회 태권도원 펌투어'를 2022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태권도원 펌투어에는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참가했고 올해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가 12월에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지난 주말 임종남 부회장과 가평군 채광병 회장을 비롯해 고양시·성남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 협회 임원 등 11명이 태권도원을 방문했다. 태권도원 전반에 대한 소개와 국립태권도박물관 관람, 체험관 YAP·플레이온, 태권전·명인관·전망대 견학, 태권도원 활성화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최재구 성남시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원에 참가 한 일반 가족들이 도복을 입고 태권도원을 다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재단이 출시한 도장 전용 상품도 관내 도장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화했고 상품부터 태권도인들에 대한 혜택이 커진 것을 직접 와서 알았다"라며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에 태권도원과 같이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진흥재단의 '시·도 태권도협회 펌투어' 일정을 소화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임종남 경기도태권도협회 부회장은 "대화와 행사를 위해 태권도원을 방문 하더라도 T1경기장과 도약센터 위주로 다녀 상세한 체험을 하지 못한 장소들이 많았는데, 이번 펌투어에서 직접 다녀보니 태권도원이 태권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했다"라며 "특히 간담회를 통해 태권도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재단에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며 시도협회의 소원과 교류 협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무주=전문선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시설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나 각 도장에 필요한 지원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감사하다"라며 "태권도원은 태권도인들의 열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태권도인들이 더 사랑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모두가 즐기는 세상 멋진 취미 태권도를 주제로 한 TV 광고를 KBS와 SBS, tvN을 비롯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달간 송출한다.